



높은 하늘 위로 킥오프! 고양 드론축구 챔피언십 리그(GDCL) 개최

글 노경란 사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드론볼(출처_한겨레)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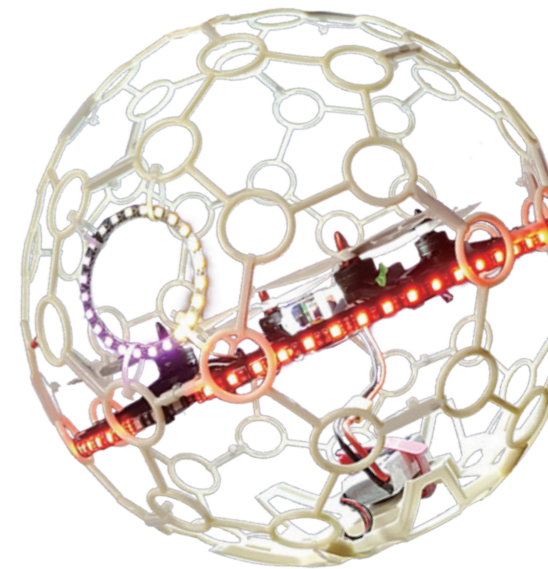
드론산업은 물류, 교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도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 고양시에는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R&D거점인 항공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비행장과 기업입주실을 포함하는 드론앵커센터를 조성 중이다(2022년 예정).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사업에 도전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을 지정받고자 한다. 서비스 확산 측면에서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실증도시구축 사업에 선정돼 귀가안심도우미, 인프라점검 등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인비행체(Personal Air Vehicle, PAV)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고양 드론축구 챔피언십 리그 개최

올해는 시민 접점 확대를 위한 스포츠 이벤트로 '고양 드론축구 챔피언십 리그(Goyang Dronesoccer Championship League, GDCL)'를 개최한다. 드론축구는 공 모양의 '드론볼'을 조종해 골대에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방식의 신개념 스포츠 경기이다.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는 드론볼은 관객들에게 짜릿한 스릴감을 주어 다양한 연령층에 인기몰이 중이다. 드론축구를 실제로 본 관객들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퀴디치' 경기를 연상하기도 한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고양 드론축구 챔피언십 리그는 2020년 8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5주 간 고양여울림누리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4개조 24개팀이 조별 예선을 치른 뒤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전국에서 1부, 2부, 유소년부를 대상으로 약 60개 참가팀을 모집한다. 전 경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랜선 개막식'을 포함한 모든 경기는 온라인으로 중계 예정이다. 금번 경기의 총 시상금은 국내 최대인 5,000만 원이다. 드론 축구는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즐길 수 있으며 누구나 일정 시간 연습만 한다면 쉽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드론의 추락 등 돌발 상황에서 드론을 수리하고 정비해야하기 때문에 드론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양 드론축구 챔피언십 리그를 통해 다채로운 드론의 세계에 입문하기를 권해 드린다.

※ 자세한 일정과 온라인 중계 페이지 등은 추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ipa.or.kr) 공지사항 참고(문의 : 031-960-7822)



드론볼(출처_드론축구협회)



출처_드론축구협회



출처_드론축구협회

드론축구대회

드론축구대회



드론축구란?

드론축구는 드론과 축구를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구의 방식이 아니라 공격수가 수비수를 뚫고 골대를 통과해 득점하는 '미식축구' 방식의 경기이다. 5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며, 선수들은 각각 드론을 감싸고 있는 공 모양의 '드론볼(지름 40cm)'을 가지고 출전한다. 드론을 감싸고 있는 특수소재의 '보호막' 덕분에 격렬한 경기 중에 드론이 떨어지더라도 망가지지 않고 다시 뜰 수 있다. 팀을 이루는 선수 5명 중 2명은 공격수, 3명은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 공격수들은 드론볼을 조종해 지상 3m 높이에 설치한 튜브 모양(지름 60cm)의 골대에 슛을 넣는다. 그동안 수비수들은 공격수들이 골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3분 3세트로 진행해 많은 세트를 가져간 팀이 승리한다.